

단계별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농촌마을만들기의 효과 연구 - 전라북도 진안군을 대상으로 -

이원주 · 이유직*

부산대학교 대학원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Rural Community Planning through the Stepwise Empowerment System in Jinan-gun

Lee, Weon-Ju · Lee, Yoo-Jick*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rural community planning focusing on the stepwise empowerment system in Jinan-gun, Jeollabuk-do province. This paper also tries to examine how this system affect the awareness for community planning and empowerment of the residents.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ho join this program were also investigated.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A consisted of the people who join the system from the first stage, and group B consisted of the people who joined the fourth stage directly. The differences of the recognition, capability changes and satisfaction between two group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group A recognized the community planning system in Jinan-gun more positively than group B. They thought that it's very useful and beneficial for their community and this system should be continued further. The second, group A considered that they achieved bigger advancement in community design capabilities in terms of personal, relational and social aspects than group B. In addition, group A also showed higher satisfaction for rural community planning than group B. Based on the results, alternatives for rural community planning were drawn as follows. The first, considering that group A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s, starting from the first stage is more stable way to succeed in rural community planning. Which means the critical condition of community design is not the community business but the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and community mind. The second, it's considere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s proportional to the advancement of capability in community project, so improving residents' opportunity to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sign might be effective. The third, community leader is another critical condition. It is need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ducation for the rural community leader with good experience and capability of community affairs.

Key words : Rural Community Planning, Stepwise Empowerment System, Jinan-gu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설의 낙후와 빈곤 등 복합적

인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발전이 주요한 실천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 정부는 관련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의 특성상 기존의 인적·물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이 기간 안에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미흡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Corresponding author : Lee, Yoo-Jick

Tel : 055-350-5404

E-mail : lee@pusan.ac.kr

이러한 실패의 대안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 스스로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농촌개발 사업을 정책화하고 지방으로 지침을 내려주어 집행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마을로 만들어 나가려는 정책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배양하여 공동체 정신과 사업시행 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린 후 이런 수준에 도달한 마을들을 국가지원 사업에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성공적이고 지속적이며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마을만들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단계적 육성의 형식을 갖추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중인 곳으로는 충청남도, 제주도 서귀포시, 전라북도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등 여러 군데가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는 주민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단계적 마을만들기 모델의 선도적 사례로 인정받아 여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이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분야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도 관광객들과 귀농귀촌 정착 가구 수의 증가와 같은 결과도 알려지고 있어 성공적인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으로 평가된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마을에 대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매 단계 일련의 성과를 거두는 마을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단계별 주민역량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단계별로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하나씩 거침으로써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을 자체의 역량을 키워도록 지자체가 일련의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마을들에 대해서 점차 소득증대 사업을 해나가도록 지원, 육성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대규모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계별 주민역량의 강화가 마을만들기 성과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스스로 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주민의 단계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이 참여한 주민들의 인식 및 역량변화에 어떤 효과를 주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존의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농촌 마을만들기와 역량강화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농촌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연구로는 농촌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방한영(2003), 안중현(2008), 배기택(2012), 문지환(2012)),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송승현(2008), 최용감(2010)),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곽동원(2008), 김정흠(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가 취하고 있는 공통적인 입장은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과 실천방안의 모색이라 요약되는데, 그 결과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민들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역량강화로 해석되는 용어는 크게 ‘capacity building’과 ‘empowerment’ 등이 있는데, 전자는 “어떤 적절한 기능을 효과적, 효율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 조직,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등의 주체가 자신의 일상에 대한 결정능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이영아, 2009). 이러한 역량강화의 효과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개인내적, 대인적, 사회 정치적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각각의 변화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며, 개인내적 변화가 대인적 변화와 사회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김진경 등, 2011).

이런 측면에서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적, 대인적,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윤화(2000)는 역량강화적 변화의 변수들로 개인적 차원의 변화, 대인 관계적 차원의 변화, 구조적(사회 정치적)차원의 변화를 들었으며, 개인적 차원의 변화로는 자립의식과 권리의식을, 대인 관계적 차원의 변화로는 정보력, 대처기술, 도움요청능력을, 구조적 차원의 변화로는 사회의식을 세부적으로 정의하였다. 허소영(2013) 역시 역량의 변화를 개인적 변화, 대인적 변화, 사회정치적 변화로 나누어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가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수원 못골시장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 고찰해 볼 때, 주민역량강화는 성공적인 농촌 마을만들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고찰은 개인적, 대인적,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I. 진안군 마을만들기

1. 일반 개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내발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단계적인 주민 상향식 마을개발 방법을 확립하고 적용한 전국 최초의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2001년 읍면지역개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2002년 공모를 통해 으뜸마을가꾸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심을 이루는데, 특히 주민 주도 학습과 토론, 마을 공동체 교육을 중시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그 해 12월에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였다. 2005년 마을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행정의 담당 부서별로 따로 시행하던 마을단위 사업을 단계별 사업 추진 방식으로 바꿔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10년 5월에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공포함으로 단계적 시스템을 확정하였다.

진안군의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개발사업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먼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우수마을로 평가받은 마을에 한해서 이후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행정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마을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 2단계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3단계 으뜸마을 가꾸기사업, 4-5단계 국·도비 지원사업 순으로 진행된다 (Figure 1 참조). 첫 단계인 그린빌리지사업에서는 소규모 경관가꾸기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단계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단계로 나가는데,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쉼터나 문화공간 조성, 담장허물기, 놀이터나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를 거쳐 3단계인 으뜸마을가꾸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소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마치면 크고 작은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현황

2008년 이전의 3단계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11개 마을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258개의 마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Table 1 참조). 135개 마을이 1단계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단계는 44개, 3단계는 27개, 4단계는 30개, 5단계는 22개 마을이 각각 참여하였다.

같은 단계의 사업을 한 마을에서 년도가 다르게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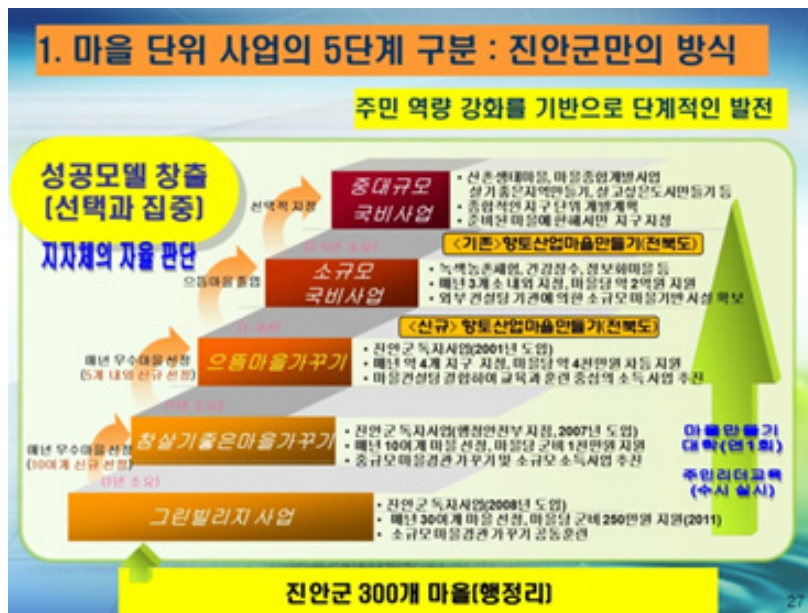


Figure 1 진안군 마을단위 사업의 5단계 구분.
(자료: 진안군(2011) 진안군마을만들기의 경험과 과제 PPT.)

진행한 경우도 있었으며 여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진안읍 가막마을을 비롯한 8개 마을은 1,2,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단계별 사업 중 1개 단계에 참여한 마을은 총 116개였으며, 2개의 단계에 참여한 마을은 40개, 3개의 단계에 참여한 마을은 14개, 1-2-3-4단계를 모두 참여한 마을은 마령면 신덕마을과 부귀면 미곡마을 등 2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째 그룹은 1-2-3-4단계에 모두 참여한 마을이며(A그룹) 두 번째 그룹은 1,2,3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 사업에 참여한 마을(B그룹)로 나누었다. 문헌고찰 및 현장 조사결과 1,2,3,4 네 단계를 모두 참가한 마을은 마령면 신덕마을과 부귀면 미곡마을 두 개뿐이었으므로 이 두 마을을 A그룹으로 하였다. 그리고 앞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 사업을 시행한 마을은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과 원가막마을, 마령면 대동마을, 추동마을, 장재마을 등 8개였는데, 이 중에서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시행한 원가막마을과 정보화마을사업을 시행한 대동, 추동, 장재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마을을 B그룹으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선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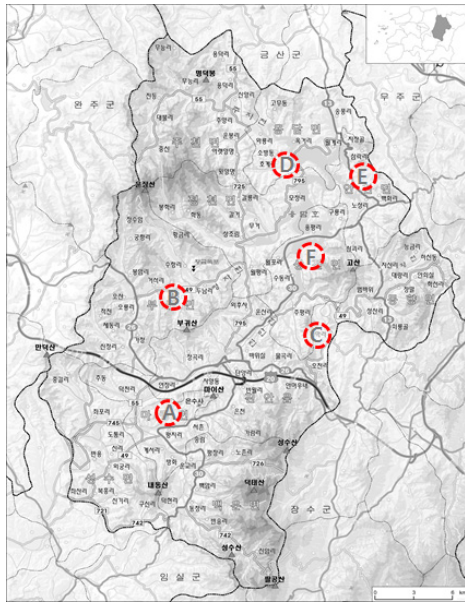
2. 조사방법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농촌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인

Table 1 진안군 읍·면별 사업지구 현황

구분		진안읍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정천	주천	계		
1단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2008	13	2	3	2	3	2	3	7	8	4	5	135	
		2009	5	2	1	3	1	4	3	2	4	1	3		29
		2010	7	2	2	2	2	2	2	2	3	1	3		28
		2011	4	2	2	2	2	3	2	2	3	2	1		25
2단계	참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2008	1	1	2	-	-	1	1	-	2	1	1	10	44
		2009	3	1	-	1	1	-	-	3	2	1	-	12	
		2010	2	1	-	1	1	2	1	-	1	1	1	11	
		2011	3	2	-	1	1	1	-	1	1	-	1	11	
3단계	으뜸마을 가꾸기	~2008	1	1	1	1	1	1	1	1	1	1	1	11	27
		2009	1	1	-	-	-	-	-	-	1	1	1	5	
		2010	2	-	-	1	-	-	-	1	-	-	-	4	
	2011	1	-	-	-	-	1	-	-	1	1	-	4		
	향토산업마을 (신규)	2011	3	-	-	-	-	-	-	-	-	-	3		
4단계	녹색농촌체험마을	2002~ 2011	1	1	-	1	-	1	2	-	1	-	1	8	30
	정보화마을	2002~ 2011	-	-	-	5	-	-	7	-	-	-	12		
	청정테마파크사업	2002~ 2011	-	-	1	-	-	-	-	-	-	-	1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 2011	-	1	1	-	1	-	-	-	2	-	5		
	건강장수마을	2002~ 2011	-	-	-	-	1	-	1	-	-	-	2		
	향토산업마을 (기존)	2010~ 2011	-	-	-	-	1	-	1	-	-	-	2		
5단계	산촌생태마을	2002~ 2011	-	1	1	-	-	1	1	-	1	2	1	8	22
	마을종합개발사업	2006~ 2011	-	-	-	7	-	-	-	7	-	-	14		
참가사업 지구 수			47	18	14	27	16	19	17	27	38	16	19	258	

(자료: 구자인 등(2011) pp.64-65.)



A: 마령면 신덕마을 B: 부귀면 미곡마을
C: 진안읍 가막마을 D: 용담면 감동마을
E: 안천면 상리마을 F: 상전면 금지마을

Figure 2 조사대상 마을의 위치.

식 실태와 역량변화 평가 및 주민 만족도 등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 5문항, 농촌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인식 실태에 관한 항목 13문항, 주민 역량 평가를 위한 15문항과 만족도 평가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민 역량 평가는 관련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추출한 총 15가지 항목으로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역량 변화 및 만족도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마을 주민 중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202명을 조사하였다(Table 3 참조). 설문조사는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주민에게 1:1로 질문하고 대답을 응답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 분석방법

회수한 설문지는 우선 기본 인적사항과 주민인식실태에 대해 기초적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민 역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개의 마을로 구성된 A그룹은 독립표본 T-

Table 2 설문조사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고
마을만들기 주민인식 (13문항)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 / 참여 횟수 / 단계별 참여 실태 / 선호도 / 선호 이유 / 가장 중요한 사업 / 가장 중요한 주체 / 향후 지속성 / 향후 지속여부 이유	명목 척도
주민 역량 요인 (15문항)	자립의식 / 권리의식 /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 자기자각 / 비판적 사고·주장 / 정보력 / 대처기술 / 도움요청능력 / 지식·기술 / 문제해결 / 새로운 기술연습 / 사회의식 / 정치적 행동·참여 / 기여·보상 / 환경에 대한 통제감	5점 리커트 척도
만족도 (1문항)	전반적인 만족도	
기본 인적사항 (5문항)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거주 년수	명목 척도

Table 3 설문조사 개요

(단위: 부)

그룹	조사대상지	조사기간	수량
A그룹 (1,2,3,4단계 사업 추진마을)	마령면 신덕마을	2012년 10월 28일	42
	부귀면 미곡마을	2012년 10월 29일	29
B그룹 (4단계 사업만 추진마을)	진안읍 가막마을	2012년 10월 30일	35
	용담면 감동마을	2012년 10월 30일	21
	안천면 상리마을	2012년 11월 01일	33
	상전면 금지마을	2012년 11월 02일	42
계			202

검정을 실시하였고 네 개의 마을로 구성된 B그룹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그룹과 B그룹의 그룹간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주민만족도 또한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대 이상이 50.5%로 가장 높았고 60대 20.3%, 50대 17.8%, 40대 8.4%의 순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78.7%, 중학교 졸업(이하) 12.8%, 고등학교 졸업(이하) 4.0% 순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자영업(농업·어업)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 년 수는 30년 이상이 8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참조).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 속성 분석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59.4%로 남성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령층은 70

2. 주민인식 실태 분석

2.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참여도

응답자 202명 중 201명(99.5%)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Table 4 응답자 속성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성별	남성	17(40.8)	12(41.3)	29(40.8)	9(25.7)	12(57.1)	20(60.6)	12(28.6)	53(40.5)	82(40.6)
	여성	25(59.2)	17(74.3)	42(59.2)	26(74.3)	9(42.9)	13(39.4)	30(71.4)	78(59.5)	120(59.4)
연령	20대	-	-	-	-	-	-	1(2.4)	1(0.8)	1(0.5)
	30대	2(4.9)	-	2(2.8)	2(5.7)	-	1(3.0)	-	3(2.3)	5(2.5)
	40대	6(14.6)	2(6.9)	8(11.3)	-	2(9.5)	6(18.2)	1(2.4)	9(6.9)	17(8.4)
	50대	7(17.1)	3(10.3)	10(14.1)	7(20.0)	6(28.6)	6(18.2)	7(16.7)	26(19.8)	36(17.8)
	60대	6(14.6)	6(20.7)	12(16.9)	9(25.7)	-	8(24.2)	12(28.6)	29(22.1)	41(20.3)
	70대 이상	21(51.2)	18(62.1)	39(54.9)	17(48.6)	13(61.9.2)	12(36.4)	21(50.0)	63(48.1)	102(50.5)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29(24.0)	24(82.8)	53(74.6)	32(91.4)	15(71.4)	26(78.8)	33(78.6)	106(80.9)	159(78.7)
	중학교 졸업/이하	8(19.0)	5(17.2)	13(18.3)	-	2(9.5)	4(12.1)	7(16.7)	13(9.9)	26(12.8)
	고등학교 졸업/이하	1(2.4)	-	1(1.4)	2(5.7)	3(14.3)	2(6.1)	-	7(5.3)	8(4.0)
	대학(교) 졸업/이하	2(4.8)	-	2(2.8)	1(2.9)	1(4.8)	1(3.0)	1(2.4)	4(3.1)	6(3.0)
	대학원 졸업/이상	2(4.8)	-	2(2.8)	-	-	-	1(2.4)	1(0.8)	3(1.5)
직업	농·어업	34(81.0)	29(100.0)	63(88.7)	30(85.7)	21(100.0)	33(100.0)	39(92.9)	123(93.9)	186(92.0)
	사무직	-	-	-	-	-	-	-	-	-
	전문직	-	-	-	1(2.9)	-	-	-	1(0.8)	1(0.5)
	주부	4(9.5)	-	4(4.0)	-	-	-	-	-	4(2.0)
	서비스직	-	-	-	1(2.9)	-	-	-	1(0.8)	1(0.5)
	학생	-	-	-	-	-	-	2(4.8)	2(1.5)	2(1.0)
	무직	3(7.1)	-	3(4.2)	3(8.6)	-	-	-	3(2.3)	6(3.0)
	기타	1(2.4)	-	1(1.4)	-	-	-	1(2.4)	1(0.8)	2(1.0)
거주년수	1년 미만	1(2.4)	-	1(1.4)	-	-	-	-	-	1(0.5)
	1-5년	3(7.1)	-	3(4.2)	2(5.7)	1(4.8)	-	-	3(2.3)	6(3.0)
	5-10년	-	-	-	2(5.7)	-	1(3.0)	1(2.4)	4(3.1)	4(2.0)
	10-15년	-	-	-	2(5.7)	-	-	-	2(1.5)	2(1.0)
	15-30년	7(16.7)	2(6.9)	9(12.7)	2(5.7)	2(9.3)	2(6.1)	4(9.5)	10(7.6)	19(9.4)
	30년 이상	31(73.8)	27(93.1)	58(81.7)	27(77.1)	18(85.7)	30(90.9)	37(88.1)	112(85.5)	170(84.1)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A그룹의 유일한 비인지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었으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4단계만 참여한 B그룹과는 달리 A그룹의 경우 여러 차례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3번 참여한 응답자가 50%, 네 번 모두 참여한 응답자가 47.1%로 나타나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의 97.1%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참조). 구체적인 단계별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에 95.7%, 2단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90.0%, 3단계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 51.4%, 4단계 국·도비 사업에 60.0%의 응답자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참조).

2.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선호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선호도는 A, B그룹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긍정 54.2%, 매우 긍정 21.4%, 부정 12.4% 순이었으며, A그룹은 긍정이 95.8%, B그룹은

64.9%로 나타났다. B그룹이 A그룹보다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B그룹의 상리마을은 부정적인 응답자가 72.7%로 가장 높았다. 전체 마을 중 상리마을을 제외한 5개의 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Table 8 참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49.7%, 일자리 및 소득증대 23.7%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정적 응답이 제일 많았던 B그룹의 상리마을은 사업 진행 중 귀농귀촌인들과 마을원주민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불화와 갈등이 생겨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이득이 적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라 답하였다(Table 9 참조).

2.3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및 주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A, B그룹 모두 기초생활기반 확충(47.3%), 일자리 및 소득증대(38.8%)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응답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A그룹에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Table 5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인지	41(97.6)	29(100.0)	70(98.6)	35(100.0)	21(100.0)	33(100.0)	42(100.0)	131(100.0)	201(99.5)
비인지	1(2.4)	-	1(1.4)	-	-	-	-	-	1(0.5)
비인지 이유	이사 옴	-	-	-	-	-	-	-	-

Table 6 사업 참여 횟수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한 번 참여	-	-	-	35(100.0)	21(100.0)	33(100.0)	42(100.0)	131(100.0)	131(65.2)
두 번 참여	1(2.4)	1(3.4)	2(2.9)	-	-	-	-	-	2(1.0)
세 번 참여	19(46.3)	16(55.2)	35(50.0)	-	-	-	-	-	35(17.4)
네 번 참여	21(51.2)	12(41.4)	33(47.1)	-	-	-	-	-	33(16.4)

Table 7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참여 실태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1단계	그린빌리지	38(92.7)	29(100.0)	69(95.7)	-	-	-	-	-
2단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34(82.9)	29(100.0)	63(90.0)	-	-	-	-	-
3단계	으뜸마을가꾸기	24(58.5)	12(41.4)	36(51.4)	-	-	-	-	-
4단계	국·도비사업	21(51.2)	21(72.4)	42(60.0)	35(100.0)	21(100.0)	33(100.0)	42(100.0)	131(100.0)

Table 8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선호도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매우 긍정	16(39.0)	7(24.1)	23(32.9)	6(17.1)	1(4.8)	-	13(31.0)	20(15.3)	43(21.4)
긍정	23(56.1)	21(72.4)	44(62.9)	20(57.1)	16(76.2)	-	29(69.0)	65(49.6)	109(54.2)
보통	2(4.9)	1(3.4)	3(4.2)	4(11.4)	3(14.3)	9(27.3)	-	16(12.2)	19(9.5)
부정	-	-	-	4(11.4)	1(4.8)	20(60.6)	-	25(19.1)	25(12.4)
매우 부정	-	-	-	1(2.9)	-	4(12.1)	-	5(3.8)	5(2.5)

Table 9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선호 이유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긍정 이유	기초생활기반 확충	17(42.)	23(82.1)	40(59.7)	4(12.9)	8(44.4)	-	38(90.5)	50(43.9)	90(49.7)
	일자리 및 소득증대	14(35.9)	5(17.9)	19(28.4)	16(51.6)	4(22.3)	-	4(9.5)	24(21.1)	43(23.7)
	교육 및 역량강화	5(12.8)	-	5(7.5)	1(3.2)	-	-	-	1(1.0)	6(3.3)
	경관개선	3(7.7)	-	3(4.5)	13.2	2(11.1)	-	-	3(7.9)	6(3.3)
부정 이유	기타	-	-	-	4(12.9)	3(16.7)	-	-	7(6.1)	7(3.9)
	시간이 없어서	-	-	-	2(6.5)	-	1(4.2)	-	3(2.6)	3(1.7)
	___이 싫어서	-	-	-	2(6.5)	-	1(4.2)	-	3(2.6)	3(1.7)
	기타	-	-	-	1(3.2)	1(5.6)	22(91.7)	-	23(20.2)	23(13.3)

을 가장 중시했고, B그룹은 일자리 및 소득증대를 다소 높게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그룹의 금지마을은 A그룹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Table 10 참조).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점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마을리더 52.2%, 주민 41.8%, 행정 4.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룹별 응답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A그룹은 마을리더를(77.1%), B그룹은 주민을(52.7%)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응답하였다. B그룹의 금지마을은 A그룹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Table 11 참조).

Table 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기초생활기반 확충	19(46.3)	25(86.2)	44(62.9)	7(20.0)	7(33.3)	-	37(88.1)	51(38.9)	95(47.3)
일자리 및 소득증대	19(46.3)	2(6.9)	21(30.0)	20(57.1)	9(42.9)	23(69.7)	5(11.9)	57(43.5)	78(38.8)
경관개선	1(2.4)	-	1(1.4)	4(11.4)	-	-	-	4(3.1)	5(2.5)
교육역량강화	2(4.9)	2(6.9)	4(5.7)	2(5.7)	2(9.5)	-	-	4(3.1)	8(4.0)
기타	-	-	-	2(5.7)	3(14.3)	10(27.3)	-	15(11.5)	15(11.5)

Table 11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태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행정	-	-	-	4(11.4)	-	4(12.1)	-	8(6.1)	8(4.0)
주민	10(24.4)	5(17.2)	15(21.4)	14(40.0)	12(57.1)	28(84.8)	15(35.7)	69(52.7)	84(41.8)
마을리더	31(75.6)	23(79.3)	54(77.1)	16(45.7)	8(38.1)	-	27(64.3)	51(38.9)	105(52.2)
전문가	-	-	-	-	-	-	-	-	-
기타	-	1(3.4)	1(1.4)	1(2.9)	1(4.8)	1(3.0)	-	3(2.3)	4(2.0)

2.4 향후 지속성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하여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리마을을 제외하고는 B그룹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주민들의 경우는 B그룹이 A그룹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2 참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47.7%, 일자리 및 소득증대 28.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단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Table 13 참조).

3. 주민역량 분석

3.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5개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3개의 성분으로 분류되었다. 권리의식, 자립의식, 자기자각,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등은 성분3으로 함께 묶였는데 이들 요인은 개인적 차원의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도움요청 능력, 문제해결 능력, 새로운 기술연습, 지식·기술, 대처기술 등 5개 항목은 성분 2로 함께 묶였는데 이들 요인은 대인적 차원의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Table 12 마을만들기 사업의 향후지속성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덕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지속해야한다	39(95.1)	29(100.0)	68(97.1)	30(85.7)	19(90.5)	3(9.1)	42(100.0)	94(71.8)	162(80.6)
잘 모르겠다	2(4.9)	-	2(2.9)	2(5.7)	2(9.5)	2(6.1)	-	6(4.6)	8(4.0)
중단해야한다	-	-	-	3(8.6)	-	28(84.8)	-	31(23.7)	31(15.4)

Table 13 마을만들기 사업의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한 이유

(단위: 명(%))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덕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지속 이유	기초생활기반 확충	17(43.6)	25(86.2)	42(61.8)	7(21.2)	5(26.3)	-	38(90.5)	50(40.0)	92(47.7)
	일자리 및 소득증대	18(46.2)	2(6.9)	20(29.4)	17(51.5)	10(52.6)	3(9.7)	4(9.5)	34(27.2)	54(28.0)
	교육역량강화	1(2.6)	-	1(1.5)	2(6.1)	-	-	-	2(1.6)	3(1.6)
	경관개선	3(7.7)	2(6.9)	5(7.4)	2(6.1)	2(10.5)	-	-	4(3.2)	9(4.7)
중단 이유	기타	-	-	-	2(6.1)	2(10.5)	-	-	4(3.2)	4(2.1)
	시간이 없어서	-	-	-	1(3.0)	-	-	-	1(0.8)	1(0.5)
	소득이 없어서	-	-	-	1(3.0)	-	28(90.3)	-	29(23.2)	29(15.0)
	기타	-	-	-	1(3.0)	-	-	-	1(0.8)	1(0.5)

Table 14 요인분석 결과

구분	역량세부항목	성분		
		1	2	3
개인적 차원	권리의식	.386	.096	.814
	자립의식	.295	.466	.693
	자기자각	.110	.539	.673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423	.445	.590
대인적 차원	도움요청능력	.354	.769	.244
	문제해결	.421	.690	.336
	새로운 기술연습	.475	.652	.320
	지식·기술	.483	.623	.362
	대처기술	.532	.555	.340
사회적 차원	정보력	.744	.191	.349
	정치적 행동·참여	.719	.516	.176
	기여·보상	.717	.481	.161
	사회적의식	.667	.419	.332
	환경에 대한 통제감	.660	.412	.394
	비관적 사고 주장	.602	.272	.438
고유값		4.299	3.857	3.101
% 분산		28.661	25.711	20.670
% 누적		28.661	54.372	75.042

나머지 정보력, 정치적 행동·참여, 기여·보상, 사회의식, 환경에 대한 통제감, 비판적 사고 주장 등의 항목은 성분1로 분류되었는데 이들 요인들을 사회적 차원의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3개의 성분은 전체변동의 75.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참조).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에서 각 문항들의 일치성 즉,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의해 나누어진 개인적 차원의 역량, 대인적 차원의 역량, 사회적 차원의 역량의 세부항목 요인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차원의 cronbach's α 값은 0.89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적 차원의 역량과 사회적 차원의 역량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9가 넘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참조).

3.2 독립표본 T-검정 및 분산분석

- 1) 각 그룹의 마을간 검정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A그룹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과 자립의식과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도움요청능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마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A그룹의 두 마을들이 대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Table 16 참조).

이에 반해 B그룹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역량요인 항목에서 각 마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천면 상리마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상전면 금지마을의 경우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면서 종교적으로 단합을 잘 이루어 바로 4단계를 시행하였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두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마을들로 인해 B그룹의 마을들은 서로 구별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Table 17 참조).

Table 15 각 차원별 신뢰도 분석

구분	Cronbach's α 값	항목수
개인적 차원	0.886	4
대인적 차원	0.922	5
사회적 차원	0.918	6

Table 16 A그룹 마을간 독립표본 T-검정(T-test) 검정

차원	역량세부항목	t	p
개인적 차원	권리의식	0.391	.697
	자립의식	2.112	.038*
	자기자각	1.021	.311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2.096	.041*
대인적 차원	도움요청능력	2.313	.024*
	문제해결	1.517	.134
	새로운 기술연습	1.808	.075
	지식·기술	1.993	.050
	대처기술	0.852	.397
사회적 차원	정보력	1.046	.299
	정치적 행동·참여	0.094	.926
	기여·보상	0.188	.851
	사회적의식,	0.670	.505
	환경에 대한 통제감	1.052	.297
	비판적 사고 주장	1.004	.319

*:p-value<0.05, **:p-value<0.01, ***:p-value<0.001

2) 그룹 간 검증

A그룹과 B그룹의 그룹 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역량세부항목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 대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모든 역량세부항목에서 A그룹이 B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4단계 사업으로 진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Table 18 참조).

3.3 요인별 주민역량 변화 분석

개인적 차원의 주민역량의 변화는 A그룹 3.58, B그룹 3.16으로 나타나 A그룹이 B그룹보다 역량변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그룹 모두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자각에서 두 그룹 모두 가장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였다.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은 그동안 농업생산 위주의 활동을 하던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참여를 통해 자기효용감과 존재감, 자신의 필요성과 가치 등을 보다 많이 느끼게 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대인적 차원의 주민역량의 변화 또한 A그룹이 B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그룹은 지식·기술이 4.13으로 가장 높고, 문제해결과 대처기술이 각각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그룹은 도움요청능력이 3.62로 가장 높고, 문제해결이 3.2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17 B그룹 마을간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검증

차원	역량세부항목	F	p
개인적 차원	권리의식	31.779	.000***
	자립의식	36.535	.000***
	자기자각	53.802	.000***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46.092	.000***
대인적 차원	도움요청능력	43.365	.000***
	문제해결	53.191	.000***
	새로운 기술연습	44.242	.000***
	지식·기술	47.812	.000***
	대처기술	39.103	.000***
사회적 차원	정보력	22.481	.000***
	정치적 행동·참여	58.470	.000***
	기여·보상	52.049	.000***
	사회의식	51.198	.000***
	환경에 대한 통제감	41.053	.000***
	비판적 사고 주장	19.582	.000***

*:p-value<0.05, **:p-value<0.01, ***:p-value<0.001

Table 18 A그룹과 B그룹 간 역량세부항목 및 만족도 T-검정

차원	역량세부항목	A그룹	B그룹	t	p
개인적 차원	권리의식	3.41	3.07	3.21	.000***
	자립의식	3.74	3.24	4.72	.002**
	자기자각	3.34	2.97	3.31	.001**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3.84	3.37	4.23	.000***
대인적 차원	도움요청능력	4.06	3.62	3.96	.000***
	문제해결	3.79	3.28	4.93	.000***
	새로운 기술연습	3.99	3.35	6.49	.000***
	지식·기술	4.13	3.50	6.17	.000***
	대처기술	3.79	3.31	5.31	.000***
사회적 차원	정보력	4.11	3.58	5.49	.000***
	정치적 행동·참여	4.04	3.27	6.35	.000***
	기여·보상	3.81	3.11	5.65	.000***
	사회의식	3.74	3.01	7.03	.000***
	환경에 대한 통제감	4.29	3.55	6.68	.000***
	비판적 사고 주장	3.89	3.40	4.68	.000***
종합 만족도		4.26	3.42	6.87	.000***

*:p-value<0.05, **:p-value<0.01, ***:p-value<0.001

A그룹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에 여러 차례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욕구와 동기 유발이 높아짐으로써 지식·기술에 대한 역량변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상대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문제해결 항목은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B그룹의 경우 A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4 단계 사업부터 시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요청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도움요청 능력에 있어 가장 많이 변화했다고 스스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B그룹 또한 A그룹과 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 또한 A그룹에서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생긴 결과라 해석된다.

사회적 차원의 주민역량의 변화 또한 A그룹이 3.98, B그룹 3.32로 A그룹이 B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정보력이 두 그룹 모두 높게 나타났고, 두 그룹 모두 사회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 B그룹 모두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정보력 분야에서 가장 큰 역량강화를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사회의식 분야가 낮았던 것은 주민들의 인식은 변화하였으나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종합만족도 분석

진안군의 단계별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A그룹이 4.26, B그룹이 3.42로 나타나 A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그룹에서는 신덕마을이 미곡마을보다 높았으며 B그룹에서는 상리마을, 감동마을, 가막마을, 금지마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별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한 A그룹이 B그룹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주민들 스스로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주민만족도 수치가 다른 마을에 비해 월등히 낮은 B그룹의 상리마을의 경우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B그룹의 금지마을이 A그룹보다 더 높은 만족도 결과를 보인 것은 4단계로 바로 시작하였지만 종교적인 요인으로 주민들 사이에 유대감이 높아 높은 만족도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Table 19 참조).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주민의 단계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이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과 역량변화에 어떤 효과를 주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Table 19 요인별 주민역량 변화와 종합만족도

구분	A그룹			B그룹					전체	
	마령면 신덕마을	부귀면 미곡마을	소계	진안읍 가막마을	용담면 감동마을	안천면 상리마을	상전면 금지마을	소계		
개인적 차원	권리의식	3.44	3.38	3.41	3.31	3.19	2.21	3.48	3.07	3.19
	자립의식	3.88	3.55	3.74	3.34	3.43	2.33	3.76	3.24	3.46
	자기자각	3.41	3.24	3.34	3.11	3.14	2.00	3.55	2.97	3.10
	자기효용·존재감·자존감	3.98	3.66	3.84	3.40	3.67	2.30	4.05	3.37	3.53
	평균	3.68	3.46	3.58	3.29	3.36	2.21	3.71	3.16	3.32
대인적 차원	도움요청능력	4.22	3.83	4.06	3.60	3.90	2.73	4.21	3.62	3.77
	문제해결	3.88	3.66	3.79	3.43	3.62	2.27	3.81	3.28	3.46
	새로운 기술 연습	4.10	3.83	3.99	3.37	3.71	2.52	3.81	3.35	3.57
	지식·기술	4.24	3.97	4.13	3.40	3.76	2.55	4.14	3.50	3.72
	대처기술	3.83	3.72	3.79	3.43	3.57	2.45	3.76	3.31	3.48
	평균	4.05	3.80	3.95	3.45	3.71	2.50	3.95	3.41	3.60
사회적 차원	정보력	4.17	4.03	4.11	3.63	3.67	2.85	4.05	3.58	3.76
	정치적 행동 참여	4.05	4.03	4.04	2.94	3.76	2.12	4.19	3.27	3.54
	기여·보상	3.83	3.79	3.81	2.89	3.62	2.12	3.86	3.11	3.35
	사회적의식	3.78	3.69	3.74	2.83	3.24	2.03	3.83	3.01	3.26
	환경에 대한 통제감	4.34	4.21	4.29	3.49	3.81	2.48	4.31	3.55	3.82
	비관적 사고·주장	3.95	3.79	3.89	3.34	3.76	2.70	3.83	3.40	3.57
	평균	4.02	3.92	3.98	3.19	3.64	2.38	4.01	3.32	3.55
종합 만족도	4.32	4.14	4.26	3.65	3.43	1.75	4.48	3.42	3.71	

대상을 1-2-3-4단계를 각각 거치며 주민역량강화를 시행한 마을들(A그룹)과 바로 4단계로 진입한 마을들(B그룹)로 나누고 이들 그룹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과 역량변화 그리고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해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기반의 확충과 일자리 및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단계별로 주민역량강화를 밟아나간 A그룹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상위 단계로 진입한 B그룹보다 마을만들기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A그룹이 B그룹보다 개인적 차원, 대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마을만들기 역량이 더 커졌다고 스스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만족도 또한 A그룹이 B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성공적인 농촌 마을만들기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A그룹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1,2단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상위 단계인 일자리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진입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대단히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업의 참여횟수의 증가와 주민역량의 변화는 비례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마을리더의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역량이 좋은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인적 차원의 역량의 변화 측정에서 자기자각과 권리의식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인적 차원의 역량 변화 측정에서는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기술 항목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의식과 기여·보상 항목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런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꾸준히 시행하면 마을만들기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곽동원, 2008,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와 행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구자인, 유정규, 곽동원, 최태영, 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안양: 국토연구원.
3. 김정흠, 2009, 농촌형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진경, 이재준, 황기원, 2011, 공공시설계획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4): 105-125.
5. 문지환, 2012, 주민참여형 농촌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해남군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방한영, 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배기택, 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만들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송승현, 2008,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 농촌 마을규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안중현, 2008, 농촌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 사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이영아, 2009, 지역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참여 요소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61-272.
11. 이윤화, 2000, 역량강화적 접근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복지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진안군, 2011, 진안군마을만들기의 경험과 과제 PPT.
13. 최용감, 2010, 도·농통합형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허소영, 2013,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효과 분석: 수원 못골시장 사회적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접 수 일: (2013년 8월 12일)

수 정 일: (1차: 2013년 8월 26일, 2차: 1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9일)

■ 3인 익명 심사필